

직접관찰법을 이용한 도심 선형 여가공간의 보행자 행태분석 - 서울시 청계천을 대상으로 -

한울* · 윤희정**

*강원대학교 대학원 관광경영학과 · **강원대학교 관광경영학과

Pedestrian Behavior Tracking at Urban Linear Tourist Sites Via Direct Observation - Focused on Cheonggyecheon in Seoul -

Han, Ul* · Yun, Hee Jeong**

*Dept. of Tourism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Kangwon National University

**Dept. of Tourism Administration, Kangwon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aims to track pedestrian behavior in urban linear tourist sites and to analyse their behavioral characteristics. For these purposes, this study has adopted the direct observation, a behavioral tracking methodology, and selected Cheonggyecheon in Seoul as the study site, a representative site of urban regeneration.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the period of stay and movement distance of pedestrians in the study area are both short and most pedestrian activities, apart from walking, are of a passive nature, such as pitching pennies, reading signs, resting and the like. Spatial points of Cheonggyecheon at which pedestrians have exhibited these behaviors during their stay are summarized as 30 points and classified into 3 types: landmarks, bridges and nodes. Further research that combines several tracking methods in terms of urban pedestrian behavior is needed.

Key Words: Environmental Psychology, Behavior Tracking, Urban Tourism, Urban Walking Tourists

국문초록

본 연구는 도심 선형 여가공간 내 보행자의 행태를 추적하고, 그들의 행태특성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행태추적 방법의 하나인 직접관찰법을 도입하였고, 대표적인 선형 도시재생 사례인 서울 청계천을 연구 대상지로 선정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해 보면 대상지내 보행자들의 체류시간과 이동거리는 매우 짧았고, 도보를 제외한 주요 행태는 동전던지기, 안내판 읽기, 휴식 등의 소극적인 특성을 보였다. 또한 보행자들의 주요 행위지점을 살펴보면 30개 지점으로 종합되었으며, 랜드마크, 교량, 결절점의 세 유형으로 구분되었다. 추후 도시 보행자들의 행태에 대해 다양한 행태추적 방법이 융합된 연구들이 진행되기를 고대한다.

주제어: 환경심리, 행태추적, 도시관광, 도심 도보관광자

Corresponding author: Hee Jeong Yun, Dept. of Tourism Administration, Kangwon National University, Chuncheon 200-701, Korea, Tel.: +82-33-250-6168, E-mail: hjyun2@kangwon.ac.kr

I. 서론

최근 각 지자체들은 경쟁적으로 도보관광지(walking tourists sites)와 같은 지역 내 선형(linear) 여가공간 개발에 나서고 있다. 선형 여가공간이란 도시광장과 같은 면적 혹은 점적 여가공간이 아니라, 도보 등을 통해 이동하는 선적인 형태의 공간이라고 할 수 있으며, 청계천길이나 북촌 한옥마을의 골목길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이들 선형 여가공간 개발 움직임들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각 지역의 선형 여가공간은 현재 약 60개의 도시에 100여개 정도이며, 이를 방문하는 이용자들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10). 이러한 흐름에 따라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2010)는 2015년의 선형 여가공간의 방문자 수를 2009년에 3배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는 등 선형자원에 대한 관심과 수요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선형 여가공간의 급속한 증가는 이들 공간을 방문하는 방문자들의 특성 및 행태분석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구체적으로 선형 공간 보행자의 기본 특성, 이동거리 및 체류시간 등의 이동행태, 특정 지점에서의 구체적인 행태 특성을 이해하는 것은 공간을 계획·설계하거나 관리할 때, 방문자들의 이용심리를 파악할 때, 이용 후 평가(POE: Post occupancy evaluation) 등에 있어서 기본이 된다. 또한 선형 공간의 이용행태는 일반 점적, 면적 공간의 이용행태와 차별화될 수 있으나, 이와 관련된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관련하여 기존 선형 여가공간 방문자 관련 연구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이용 현황 파악에 따른 활성화 방안이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Jang, 2013; Kim and Sim, 2011). 방문자들의 특성 파악에 관한 연구들도 일부 진행되어 왔지만(Park and Hyun, 2009; Jung *et al.*, 2011; Kang and Jung, 2011; Kang and Lee, 2011), 이는 모두 올레길, 둘레길 등 자연자원을 바탕으로 한 도심 외곽의 선형 도보관광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선형 관광지는 농촌이나 도시 외곽 뿐 아니라, 도시 내부에도 다수 조성되기 시작하였고, 도심에 위치한 선적인 여가자원은 도시 외곽의 자원과는 차별적인 특성을 보이고 있음이 자명하다. 특히 이들 여가공간은 도시 공간의 세부 구조로서 도시구조와 밀접한 연계가 있어, 도시 외곽의 선형 여가공간과는 다른 방문자 특성, 다른 공간 특성을 가진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연구들이 도시 외곽의 선적 관광자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도심 선형 자원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들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이들의 공간적 특성에 대한 연구들은 이미 다수 진행되었으므로, 방문자들의 행태특성에 대한 연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청계천길, 북촌 한옥마을길 등 도심 내 선형 여가공간에 대한 수요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들 수요자들에

대한 행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도심 선형 여가공간을 방문하는 보행자들의 주요 행태 지점을 파악하고, 그곳에서의 행위내용 및 물리적 환경 분석, 외부적인 공간구조와의 관계성에 대해 밝히고자 한다.

한편, 특정 공간내 보행자의 구체적인 행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법에 기초한 행태추적 방법론이 이용된다. 그 중 직접관찰법은 행태추적 조사의 가장 기초적인 방법으로, 행위자를 직접 관찰함으로써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행태 파악이 가능하고, 물리적 환경에 따른 행위자의 구체적인 움직임을 이해하는데 유용하다는 장점이 있다(Im, 2008). 따라서 본 연구는 다양한 행태추적 방법론 중 직접관찰법을 이용하여 도심 내 선형 여가공간 보행자의 행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추후 도심 내 선형 여가자원 개발 시 계획 및 설계가, 정책 입안자들에게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구체적으로 일반 관광지 혹은 기존의 도시 외곽의 선형 관광지와는 다른 도심 선형 여가공간 내 보행자들의 이동행태 및 환경과의 관계성 분석을 통해, 선형 여가공간내 공간 이용 강도의 배분, 랜드마크의 입지, 휴게공간 등 공공시설물 입지선정 등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II. 관련연구동향

1. 선형 여가공간 보행자 행태분석

선형 여가공간들은 체류시간이 길고, 지역주민과 관광객이 동일한 공간에서 활동하는 등 기존의 관광자원과는 상이한 패턴을 가지고 있다(Jung *et al.*, 2011). 또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다양하게 조성된 길을 통해 보행자들에게 지역의 고유한 문화를 간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에 따라 이를 이용하는 보행자도 기존 공간에서와는 다른 행태특성을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지리산 둘레길 이용자들이 기존 보행자와 달리 자연에 대한 지적·미적 추구가 높고, 책임감이 강하여 생태관광자로서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제시되기도 하였다(Kang and Jung, 2011). Jung *et al.*(2011)는 도보관광 참여자와 비참여자를 구분하여 환경의식과 심리적 웰빙에 대한 특성을 비교하면서 도보관광 참여자의 환경의식과 심리적 웰빙수치가 더 높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Kang and Lee(2011)는 제주올레 관광객과 대중관광자의 특성을 비교함으로써 방문동기, 여행태도 등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밝히고, 이를 통해 선형 여가공간에 부합하는 프로그램과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그러나 선형 여가공간은 자연자원을 바탕으로 한 도시 외곽의 자원뿐 아니라, 도심 내에 위치한 자원들도 포함된다. 대표적으로 서울시의 경우, 종로구의 북촌 한옥마을과 삼청동 일대,

청계천, 한강 수변 도로 등이 해당된다(Jang, 2013). 이와 같은 도심 내 선형 여가공간은 역시 기존의 면적 여가공간과는 다른 특성을 보이며, 자연자원을 바탕으로 한 도심 외 선형 관광지 와도 다소 차이가 있다. 이는 공간주변 물리적 환경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구체적으로 도심 내 위치한 선형 여가공간은 도심 외 지역과는 달리 주변 환경이 도로, 철도 등의 기반시설(infrastructure)과 고층 빌딩과 같은 다양한 상부구조(superstructure)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여가공간 자체가 하나의 기반시설로서 도심 내 주요 기능을 담당한다. 따라서 이를 이용하는 보행자는 이러한 환경에 영향을 받아 이동하며, 상업시설의 위치와 유형에 따라 보행자의 행태가 달라지기도 한다(Hwang and Ahn, 2012). 또한 인접한 지하철 역 출입구 수, 보행로의 폭, 보행로와 인접한 건물의 유형 등이 보행자의 행태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Park, 2013).

도심 내 선형 여가공간의 보행자 행태관련 연구로는 Cho and Kim(2012), Seo(2013), Cho *et al.*(2014)의 연구 등이 있다. 구체적으로 Cho and Kim(2012)은 블로그(blog)에 포스팅(posting)된 사진 및 키워드 등을 통해 삼청동길 방문자들의 방문지 및 방문목적, 행태 등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삼청동길 방문자들은 갤러리, 카페, 음식점 등을 주로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eo(2013)은 북촌, 성산동 상계7동, 행당2동의 거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 GPS, 가속도계, 통행일지를 이용하여 보행행태를 분석하였는데, 최단거리의 길만 이용하지 않고 환경적 요인에 의해 우회하는 빈도가 많이 나타남을 입증하였다. 그 외 Cho *et al.*(2014)는 청계천을 포함한 하천 오픈스페이스의 방문동기와 만족도에 관하여 연구하였는데, 이용자들은 단순한 휴식 및 운동 등의 단순한 체험을 넘어 다양한 동기를 가지고 방문하며, 이러한 동기들이 전체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증명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들은 도심 내 선형 여가공간 보행자의 행태와 동기 등을 파악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으나, 연구 방법의 특성 상 구체적으로 대상자가 어디에서 머무는지, 머무는 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머무는 동안 어떤 행동을 하는지, 그러한 행동이 발생한 공간의 특성은 무엇인지 등의 구체적 연구는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2. 직접관찰법을 통한 보행자 행태분석

보행자 행태추적(pedestrians' behavior tracking)은 보행자의 행태분석 및 이동경로 등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방법론이다. 행태추적은 인간의 이동 및 행동을 관찰함으로써 이에 대한 일정 패턴들을 특성화하는 과정을 의미하며, 직접 관찰법을 비롯하여 물리적 흔적 관찰 조사, 카메라 촬영, 인터뷰를 통한 행태조사, Trip Diary, GPS(global positioning systems)를 기반으로 한 장치를 이용하는 방법 등이 사용된다(Park and

Yun, 2014). 각 방법에는 장·단점이 존재하며, 목적과 상황에 따라 적합한 방법이 사용된다. 이 중 직접관찰법과 물리적 흔적 관찰조사는 가장 기초적인 행태추적 방법이다. 물리적 흔적 관찰조사의 경우, 관광자들의 행위의 결과로 남은 물리적 흔적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으로 조사의 주관성을 일부 보완할 수 있고, 반복적인 관찰이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Im, 2008: 387), 흔적을 남기지 않는 경우에는 이 방법의 사용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이와 달리 직접관찰법은 인간의 행태를 직접 관찰함으로써 이용자들의 실제 행위 및 이용자 간의 사회적·공간적 관계성을 파악하고, 주변 환경의 구성이 이용자의 행위에 적합하지 관찰하는 방법이다(Zeisel, 1981). 특히, 조사자가 실제 현장 내부에서 조사를 진행함으로써 GPS 등의 장비를 통해 확인할 수 없는 행위, 예를 들어 멈춰서서 사진 촬영을 하거나 담소 나누기와 같은 행위를 조사할 수 있고, 그러한 행위가 일어나는 주변상황을 보다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더불어 응답자의 무의식적인 행위를 조사하여 현장에서 바로 조사할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신뢰도가 높은 자료를 얻을 수도 있다(Im, 2008: 391). 이러한 직접관찰조사는 인터뷰 조사나 Trip Diary 방법의 기록자 정보누락, Demory decay, 저조한 응답률 등의 한계점(Fennell, 1996)을 보완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외부에서 관찰할 경우 윤리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행태추적 방법은 관찰자의 행동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직접적인 외부 관찰이나 카메라 촬영 등의 방법이 자주 활용된다(Choi and Kim, 2013; Pettersson and Zillinger, 2011).

이와 같은 직접관찰법은 기초적인 행태추적 방법으로서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많이 시도되지 않고 있다. 일부 진행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Kim(2007)는 직접관찰법과 인터뷰 조사를 같이 진행하는 등 보조적인 방법으로 직접관찰법을 이용하였고, Hwang(2008)은 청계천을 대상으로 직접관찰법을 통해 보행자의 행태파악 및 내·외부 요인으로서 대상지의 물리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는 청계천 이용에 있어 보행자의 구체적이고 동적인 행태가 아닌, 구역별로 보행자가 군집되어 있는 주요 지점만을 대상으로 하여 보행자 행태가 분절되어 있는 한계를 갖는다. Baek(2006)는 직접관찰법을 이용하여 청계천의 시민문화행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청계천 내에서 이루어지는 이용자들의 이동행태 및 주요 문화 활동을 파악하고, 청계천의 문화예술 공간으로서의 가능성을 도출하였다는데 의의를 갖는다. 하지만, 이동행태에 있어서 설문조사를 병행하였으며, 행태 및 문화 활동 파악에 있어서 Hwang(2008)과 같이 구역별 특정 지점 내에서만 관찰을 진행하였다. Choi and Kim(2013)은 광화문 광장, 서울 광장, 청계 광장을 중심으로 직접관찰법을 이용하여 이용패

턴을 분석하면서, 광장의 기능을 정치적 기능, 일반적 기능, 학습적 기능으로 분류하였다. 상기 연구는 유동인구가 많은 점심 시간과 저녁시간에 관찰을 진행하여 점적 공간인 광장에서의 행태를 구체적 기능으로 분석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으나, 보행자별 동적·연속적·전체적인 행태를 분석하지 못하고, 특정 시점만을 분석한 한계점을 지닌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도심 내 선형 여가공간을 대상으로 보행자별 행태를 추적하여 대상지 내에서의 동적이고 연속적인 움직임을 전체적으로 관찰하고자 하였다.

III. 연구범위 및 방법

1. 연구 대상지

본 연구는 도심 내 선형 여가공간 보행자들의 행태를 추적하기 위해 선형 공간으로서의 특성이 잘 드러나 있고, 보행자 위주의 관광지이며, 보행자들의 구체적인 행태 파악이 용이한 서울시 종로구 청계천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청계천은 지난 2003년 복원사업을 시작하여 2005년 10월 개장된 이후로 현재 연간 약 1억 3천여 명이 방문하는 서울시의 대표 선형 관광지로서(www.cheonggyecheon.or.kr), 국내 도시재생의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이다. 청계천은 예로부터 서울 중심에 위치해 있는 지리적 특성 상 중요한 역사·문화적 장소로서 기능하였으며, 도심하천으로서 보행자들에게 큰 영향을 주고 있다(Sohn, 2008). 이와 관련하여 Baek(2006)은 청계천 방문목적의 약 50%가 산책, 휴식, 관광임을 밝히고 있다. 복원된 청계천의 총 길이는 청계광장부터 청계천 문화관까지 5.84 km이며, 청계천을 관리하는 서울시설공단은 청계천의 주요코스를 청계광장에서 오간수교까지의 제1코스(2.9km), 오간수교부터 청계천 문

화관까지의 제2코스(2.6km)로 나누고 있다. 이 중 제1코스는 시청, 광화문 광장과 인접하여 유동인구가 많고, 주변에 한국관광공사 등의 대규모 빌딩시설들이 밀집되어 있어 상부구조(superstructure)와 밀접한 특징을 가진다. 또한 청계천 보행로를 중심으로 약 1km 이내에 명동, 종각, 인사동 등 도심 내 유명 관광지들이 위치하고 있다. 따라서 청계천은 2005년 복원 이후 Hwang and Ahn(2012) 등의 많은 연구에서 연구대상지로 활용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중 가장 이용밀도가 높은 제1코스를 대상으로 하였다. 1코스의 내부적 환경으로는 청계천의 대표적인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2단 폭포를 비롯하여 전국 8도에서 가져온 돌을 이용해 만든 팔석담(八石潭) 등이 위치해 있다. 또한 전통 대청 양식을 도입한 모전교를 시작으로 광통교, 광고, 장통교 등 역사적인 배경과 의미를 가진 14개의 다리가 설치되어 있다(Figure 1 참조).

2. 조사 및 분석방법

청계천 보행자의 행태추적 조사는 2012년 10월 28일부터 11월 3일까지, 사전에 조사 방법에 대해 교육을 받은 연구자 포함 8명의 조사원들이 진행하였다. 조사원들은 연구대상지가 옥외 공간인 점을 고려하여 맑은 날 개별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시간오차를 고려하여 오전 같은 시간에 조사를 시작하였다. 조사 대상자의 선정은 청계천 1코스의 입구공간인 청계광장에서 청계천으로 진입하는 보행자 중 5인 이내의 개별관광자를 임의로 선정하여 진행하였으며, 자율적 개별행위가 제한적인 단체 관광객들은 제외되었다. 5인 이내의 소규모 그룹 보행자들의 경우, 행위의 다양한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초기관찰을 통해 그룹 내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거나, 리더 역할을 하는 1인만을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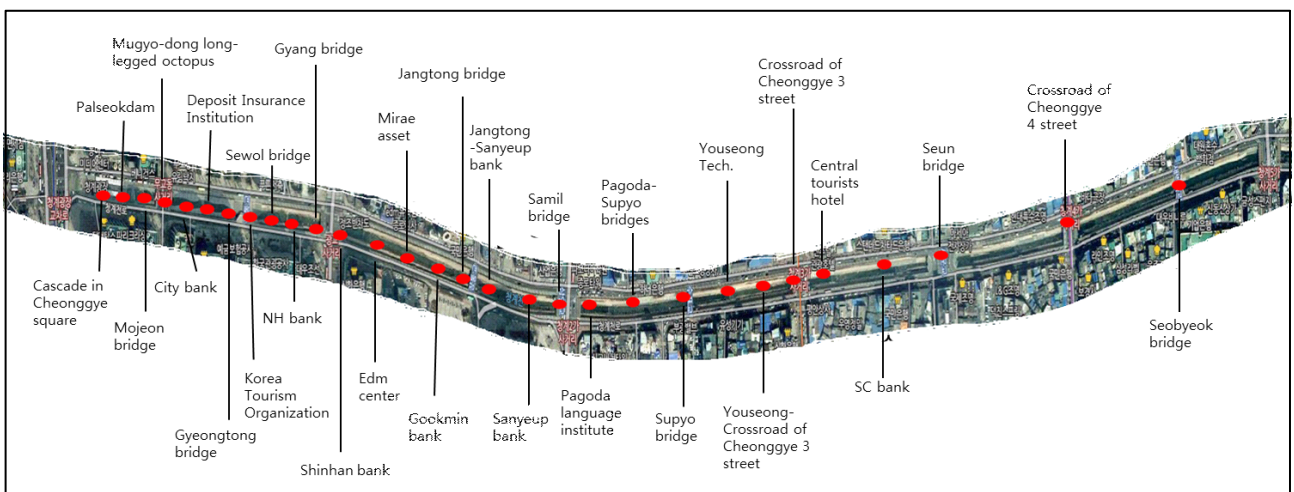


Figure 1. 1st travel route in Cheonggyecheon

관찰시 참여정도는 카메라 등 장치에서 눈치 채지 않도록 관찰하는 방법, 현장에 출현은 하되 행위자가 눈치 채지 못하도록 관찰하는 방법, 관찰자임을 드러내고 관찰하는 방법, 직접 행위자의 일원이 되는 방법 등이 사용된다(Im, 2008: 392). 이 중 본 연구는 연구자들의 참여가 조사 대상자들의 행태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관찰자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는 관찰방법인 blind observation 방법을 이용하였다. 이때 구체적인 행위를 파악하고 기록하기 위해 관찰이 가능한 정도의 일정 간격을 유지하였다.

조사는 조사내용과 도면이 포함된 A3 조사시트에 조사자들이 직접 기록하도록 하였으며, 도면표시 내용과 조사지침을 기록하여 통일된 방식으로 조사하도록 하였다(Figure 2 참조). 직접관찰시 기록 방법으로는 일반적인 기술, 조사표 이용법, 사진, 비디오 촬영, 도면(지도) 등의 방법이 널리 활용되고 있는데(Im, 2008), 본 연구에서는 기술방법과 도면표시 방법을 병행하였다. 기술내용으로는 직접관찰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조사 대상자들의 일반현황, 즉 이동유형과 인원수, 국적과 시작점과 끝 지점을 기록하여 이를 기초로 이동유형, 이동거리, 체류시간 등을 추가적으로 분석하였다. 이 때 국적의 경우, 조사원들이 비교적 근거리에서 조사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언어를 통해 구별하였다. 도면표시 방법은 이용자들의 행태를 주변의 물리적 환경구성과 연관 지어 관찰할 수 있고, 시·공간적인 행태분석이나 연속적 행위기록에 유용하다(Im, 2008). 본 연구 역시 보행자의 동적·연속적 행위를 기록하고자 하였으며, 구체적으로 행위가 일어난 지점을 맵 위에 표시하고, 행위의 정확한 위치와 행위종류, 체류시간 등을 별도로 기록하도록 하였다.

최종 수집한 표본은 122부였으나, 이 중 선형 여가공간의 보행자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체류시간 5분 이내의 경유자형 보행자 11부와, 연구대상지인 제1코스에 진입하였으나, 바로 이탈한 코스이탈자 2부를 제외하여 총 109부의 유효표본이 분석에 활용되었다. 분석은 현장에서 조사지의 도면과 직접 기록한 내용을 입력하여 사용하였으며, 행위자별 기록과 지점별 기록을 구분하여 진행하였다. 이 때 지점별 입력은 109개의 도면에 표시

되어 있는 지점들을 종합하여 진행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고찰

1. 청계천 보행자 일반특성 및 이동특성

먼저 직접관찰을 통한 보행자의 일반현황 및 이동특성을 살펴보면 Table 1과 같다. 이동유형에 있어서는 한 방향으로 이동(one way)하는 빈도가 56.0%였으며, 이동 중간 회귀(round)하는 빈도가 44.0%였다. 인원수는 2인 보행자가 64.2%로 가장 많았고, 가족, 친구 등의 3인 보행자가 19.3%로 뒤를 이었다. 1인 보행자도 10.1%로 나타났으며, 이들 대부분이 카메라를 소지하고 있었다. 국적의 경우, 내국인이 45.0%, 외국인 51.4%로 외국인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조사대상 보행자의 평균 이동거리는 현장에서 조사자가 조사 시작 지점과 마치는 지점을 표기한 후, 이후 연구자가 이를 기초로 별도로 맵을 통해 도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그 결과, 평균 이동거리는 약 0.6km로 다소 짧게 나타났으며, 평균 체류시간은 약 20분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청계천이 장거리 보행코스로서 이용되기 보다는 단거리 보행코스로서 이용되며, 도보 관광지로서 기능하기 보다는 휴식, 놀이 등의 단기 체류 및 여가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휴식 및 대화, 관찰 등의 행위지점 수는 1인당 평균 1.5개소로 나타났다.

국적별로는 내국인의 경우, 한 방향으로 이동하는 유형(one way)이 71.4%로 회귀형(round)보다 높았으며, 외국인의 경우, round형이 57.1%로 더 높은 빈도를 보였다. 이는 낮은 환경에 따른 안정적인 루트 확보 욕구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전반적으로 one way 유형이 높게 나타난 것은 청계천이 다른 목적지로의 이동 동선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는 것을 함의한다. 국적별 이동특성을 비교해 보면 이동거리의 경우, 내국인이 약



Figure 2. Survey sheet(1st travel route)

Table 1. Pedestrians' profile and movement characteristics (n=109)

Item	Frequency(%)	
Moving type	One way	61(56.0)
	Round	48(44.0)
Number of companion	1	11(10.1)
	2	70(64.2)
	3	21(19.3)
	4~5	7(6.4)
Nationality	Domestic	49(45.0)
	Foreign	56(51.4)
	Not distinguish	4(3.7)
Item	M(S.D.)	
Moving distance(km)	0.63(0.49)	
Staying period(minute)	19.06(14.44)	
Number of staying point per person	1.58(1.56)	

Table 2. Pedestrians' movement characteristics by nationality and number of companion (n=109)

Type	Frequency(%)		Mean			
	One way	Round	Moving distance (km)	Staying period (min)	Number of staying point	
Nationality	Domestic	35(71.4)	14(28.6)	0.78	21.63	1.91
	Foreign	24(42.9)	32(57.1)	0.51	17.26	1.32
Number of companion	1	7(63.6)	4(36.4)	0.82	22.18	2.09
	2	39(55.7)	31(44.3)	0.64	19.52	1.47
	3	12(57.1)	9(42.9)	0.57	18.33	1.66
	4~5	3(42.9)	4(57.1)	0.35	11.57	1.57

0.78km로 외국인 0.5km보다 더 많이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체류시간도 약 22분으로 약 17분의 외국인보다 더 오래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참조).

인원수의 경우, 2인 보행자의 경우 one way 형이 55.7%, round 형이 44.3%이며, 3인 보행자는 one way 형 57.1%, round 형 42.9%의 비율을 보였다. Round 형이 one way 형보다 더 높은 비율을 보인 집단은 4~5인의 보행자로 나타났다(Table 2 참조). 인원수에 따른 평균 이동 특성을 보면, 동행한 인원이 늘어남에 따라 그 특성에 다소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동거리의 경우, 1인 보행자는 약 0.82km로, 2인 보행자 0.64km, 3인 보행자 0.57km 등 인원수가 증가함에 따라 점차적으로 이동하는 거리가 짧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류 시간도 비슷한 패턴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1인 보행자의 경우 약 22분 체류하였으나, 2인 보행자는 약 20분, 3인 보행자는 약 18분, 4인 이상의 경우에는 약 12분으로 체류시간이 급격히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행위지점수도 1인 보행자가 2.09개소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Table 2 참조).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내국인이 외국인보다 one way 형의 빈도가 더 높고, 이동거리가 길며, 체류시간이 길고, 체류지점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내국인이 외국인보다 한 방향으로 더 길게, 더 많이 멈춰 서며 이동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 반면, 인원수에 따라서는 동반하는 인원수가 적을수록 더 길게 이동하고, 더 오래 체류하며, 더 많이 멈춰 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방문횟수, 공간의 이해도, 공간의 친밀도, 동반자 유형 및 동반자 인원수 등에 따라 이동행태 및 체류특성 등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국적 및 인원수에 따라 선형 여가공간의 이동행태 및 체류특성이 달라질 수 있음을 밝힌 매우 의미 있는 연구결과라고 판단된다.

2. 청계천 보행자 행태특성

건기를 제외한 보행자들의 행태특성을 종합해 보면 Table 3, Table 4와 같다. 행위별 빈도의 경우는 동전 던지기가 13.5%, 안 내문 읽기 12.6%, 휴식 12.1%, 돌다리 건너기 10.2%, 대화 7.9% 순으로 나타났다. 그 외 사진 확인 및 전시물 관람, 캐리커처 구경, 청계천 관찰 등이 3% 이상의 비교적 높은 빈도를 보였다. 이들 행태들은 대부분 보행 중 잠시 쉬는 시간에 이루어졌으며, 비교적 소극적인 행위라고 판단된다. 이는 걷는 행위 자체가 이동량과 체력소모가 많은 적극적인 행태이므로, 잠시 멈추었을 때는 대부분 소극적인 행위를 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또한 주목할만한 점은 청계천이 친수공간으로 물을 가깝게 만지고 경험할 수 있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물을 이용한 행태가 돌다리 건너기(10.2%), 청계천 관찰(3.2%), 물고기 관찰(2.3%)에 그치고 있고 그 빈도도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이는 청계천이 물이라는 공간요소를 잘 활용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공간재생의 본래 목적인 하천재생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음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행위빈도 발생지점을 살펴보면(Figure 3 참조), 가장 행위가 많이 일어난 모전교 지점에서는 동전 던지는 행위가 29회 관찰되었으며, 이를 보며 동반자간 대화하는 모습(5회)이나 주변에 앉아 휴식을 취하는 모습(5회)도 관찰되었다. 씨티은행 지점의 경우, 캐리커처를 구경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Table 3. Behavior type and staying point(total number of activities of all participants n=214)

Behavior type	Frequency(%)	Staying point	Behavior type	Frequency(%)	Staying point
Pitching pennies	29(13.5)	3	Watching caricature	8(3.7)	3, 5
Reading signs	27(12.6)	2, 3, 6, 8, 10, 12, 13, 15, 16, 21, 22, 25	Observing Cheonggyecheon	7(3.2)	2, 4, 5, 8, 11, 12
Resting	26(12.1)	1, 2, 3, 4, 5, 6, 8, 9, 12, 16, 17, 18, 21, 26, 29	Looking around	7(3.2)	3, 5, 8, 9, 20
Crossing stone bridge	22(10.2)	5, 6, 7, 9, 11, 12, 16, 20, 22, 25	Watching maps	6(2.3)	6, 11, 12, 16, 18
Conversation with companion	17(7.9)	1, 2, 3, 4, 5, 6, 8, 11, 12, 18, 20, 22, 30	Observing fishes	5(2.3)	3, 4, 5, 8
Checking pictures	14(6.5)	1, 2, 3, 6, 7, 11, 12, 21, 23, 29	Watching street arts	5(2.3)	7, 8, 13
Watching works	9(4.2)	1, 3, 5, 11, 12, 19	Observing plants	3(1.4)	10, 12, 28

Frequency 2: Conversation with tour guides, watching events, answering questionnaires, eating snacks, hugging, and arranging bag

Frequency 1: Reading a book, exchange the camera battery, watching cell phone, playing in water, observing stones, running on the stone, listening explanation, rock-paper-scissors, taking off jacket, playing with kids, imitating to public arts, observing bridges, asking way to other person, touching arts, and call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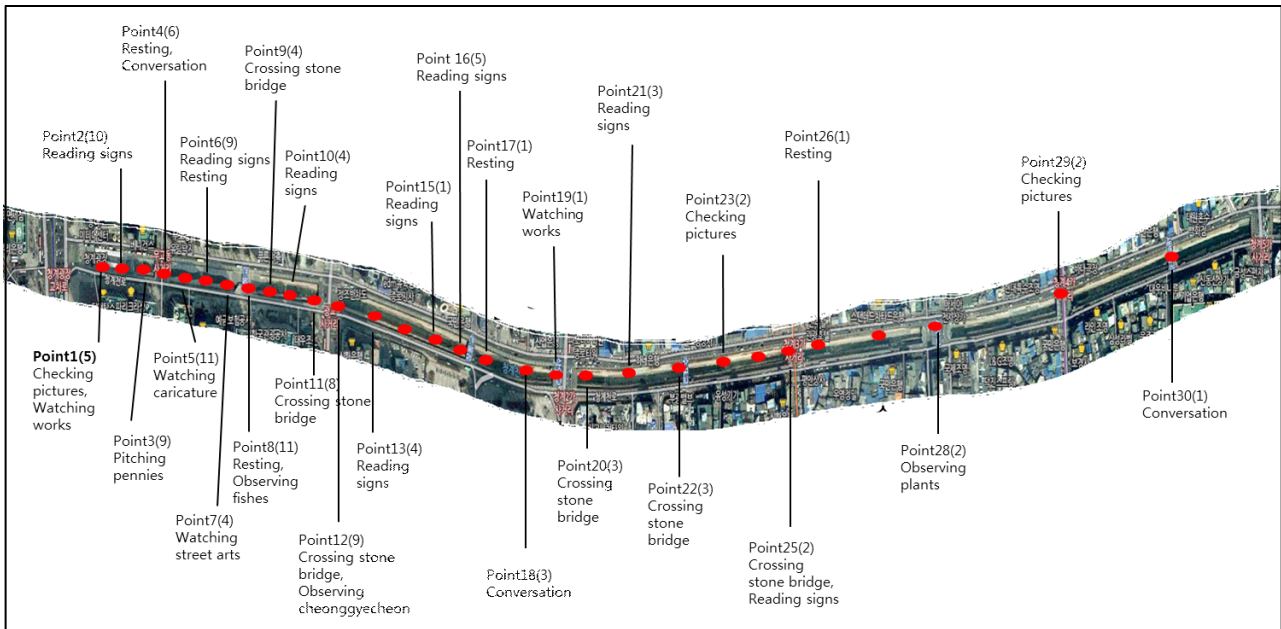


Figure 3. Activities each stopping point

많이 보였으며(6회), 전시물을 관람하는 모습(2회)이나, 단발적인 행사이지만 종묘제례악의 행진을 관찰하는 모습도 2회 관찰되었다. 이에 따라 씨티은행 지점은 다른 지점에 비해 가장 다양한 행위가 관찰된 지점으로, 정적이고 차분한 휴식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대부분의 지점이 청계천 제1코스 전반부에 위치하고 있어, 공간적 이용밀도가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사대상 보행자들의 이동거리와 체류시간이 짧은 것과 밀접하게 연계되며, 전체 코스가 효율적으로 이용되지 못하고, 특정 공간의 경우 공간이용 수용력이 초과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해당 공간의 계획이나 관리자, 관련 정책입안자들의 경우, 청계천변으로 진입한 보행자들의 체류를 늘리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이동거리를 증대시키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이는 공간의 효율적 이용과 관리, 보행자들의 만족도 증가에도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다.

3. 청계천 보행자 지점별 행태특성

이상의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주요 행태가 나타난 지점을 종합해 보면 총 30개소로 나타났다. 이 때 행위의 빈도가 낮고, 물리적 환경이 유사한 지점들의 경우에 통합하여 분석하였다(Table 4 참조). 30개 지점의 구분은 청계광장 폭포, 팔석담 등 기존 랜드마크가 위치한 공간은 랜드마크로 구분하였으며, 등 축제를 위해 하천 위에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는 지점 역시 랜드마크로 구분하였다. 그 외 모전교(3지점), 광통교(7지점) 등은 교

량으로 구분하였고, 외부 도시공간과의 연계 등을 위한 갈림길이나 출입구의 경우, 결절점으로 구분하였다. 그 결과, 랜드마크형이 19개소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다음으로 교량 9개소, 결절점 2개소로 나타났다. 이 중 one way 유형의 도착지점은 광고가 57.4%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고, 삼일교(11.5%), 청계3가 사거리(9.8%) 순으로 나타났다. 광고의 빈도가 높게 나타난 것은 광고가 청계광장에서 약 500m 떨어진 지점으로 청계광장에서 시작한 보행로에서 외부로 나갈 수 있는 첫 번째 출구이자, 종각, 명동 등 주변 상업지구로 갈 수 있는 지점이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또 을지로입구역, 종각역 등이 인접해 있어 교통수단을 이용하기에 편리한 지점의 특성도 갖는다. 마찬가지로 삼일교와 청계3가 사거리 역시 각 지점이 인사동, 종로3가역 등 도심 내 관광지 및 지하철역에 인접한 곳이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와 관련하여 Chae et al.(2009)의 연구에서는 청계천 주변의 대중교통과 보행자들의 이동 네트워크의 연계성이 낮다고 분석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도 결절점의 빈도가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일정부분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Choi and Kim(2013)의 연구에서는 광장의 기능을 정치적, 일반적, 학습적 기능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는데, 이를 본 연구에 적용해 보면 청계천변의 기능은 대부분 휴식 등의 일반적 기능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청계천의 초기 재생 목적 중 하나가 역사자원의 재생과 활용이라는 점에서 청계천의 학습적 기능이 상대적으로 미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회귀성을 보이는 round 유형의 이동 종료지점이자 회귀지점의 빈도를 분석해 보면, 모전교에서의 회귀빈도가 가장 높았고(22.9%), 광통교(14.6%), 씨티은행(12.5%)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4. Key activity points of study area

Point	Key activity points	Types	Final destination of one way pedestrians(%)	Final destination of round pedestrians(%)	Frequency of activities(%)
1	Cascade in Cheonggye square	Landmarks	-	-	5(2.9)
2	Palseokdam	Landmarks	-	1(2.1)	17(9.9)
3	Mojeon bridge	Bridges	-	11(22.9)	36(20.9)
4	Mugyo-dong long-legged octopus	Landmarks	-	3(6.3)	5(2.9)
5	City bank	Landmarks	-	6(12.5)	18(10.5)
6	Deposit Insurance Institution	Landmarks	-	2(4.2)	10(5.8)
7	Gyeongtong bridge	Bridges	-	7(14.6)	5(2.9)
8	Korea Tourism Organization	Landmarks	-	2(4.2)	7(4.1)
9	Sewol bridge	Bridges	-	2(4.2)	7(4.1)
10	NH bank	Landmarks	-	-	4(2.3)
11	Gyang bridge	Bridges	35(57.4)	4(8.3)	10(5.8)
12	Shinhan bank	Landmarks	-	4(8.3)	12(7.0)
13	Edm center	Landmarks	-	-	4(2.3)
14	Mirae asset	Landmarks	-	-	-
15	Gookmin bank	Landmarks	-	-	2(1.2)
16	Jangtong bridge	Bridges	5(8.2)	-	6(3.5)
17	Jangtong-Sanyeup bank	Landmarks	-	1(2.1)	3(1.7)
18	Sanyeup bank	Landmarks	-	-	3(1.7)
19	Samil bridge	Bridges	7(11.5)	-	1(0.6)
20	Pagoda Language Institute	Landmarks	-	-	2(1.2)
21	Pagoda-Supyo bridges	Landmarks	-	-	2(1.2)
22	Supyo bridge	Bridges	1(1.6)	1(2.1)	3(1.7)
23	Youseong Tech.	Landmarks	-	1(2.1)	2(1.2)
24	Youseong-Crossroad of Cheonggye 3 street	Landmarks	-	-	-
25	Crossroad of Cheonggye 3 street	Nodes	6(9.8)	-	2(1.2)
26	Central tourists hotel	Landmarks	-	1(2.1)	1(0.6)
27	SC bank	Landmarks	-	-	-
28	Seun bridge	Bridges	-	1(2.1)	3(1.7)
29	Crossroad of Cheonggye 4 street	Nodes	5(8.2)	1(2.1)	1(0.6)
30	Seobyek bridge	Bridges	2(3.3)	-	1(0.6)
Total		Landmarks 19 Bridges 9 Nodes 2	n=61 (100)	n=48 (100)	n=172 (100)

이는 모두 청계광장에서 약 300m 이내의 지점들로 청계천 도입부 이후 단조롭고, 반복적인 코스의 전개로 공간에 대한 흥미도가 떨어진 것이 원인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보행자의 이동거리, 체류시간 등을 늘리기 위해서는 도입부 이후의 코스에 있어서 보행자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요소들을 시간차를 두고 배치하여 보행자의 관심을 지속적으로 유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보행자의 행위가 주로 일어나는 지점은 청계천의 랜드마크이나, 대부분의 행위가 청계천 제1코스 초입에만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행위의 내용에 있

어서도 보행자들이 청계천을 보통의 휴식공간으로 이용하고 있고, 친수공간으로서의 행위가 미약하며, 여러 기능 중 일반적 기능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계천이 초기의 복원 의도인 하천복원, 문화공연, 역사체험의 장소로서의 기능에 다소 문제가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같은 문제점을 지적한 Baek(2006)의 연구 결과와도 부합된다. 따라서 추후 청계천 이용자들의 체류시간을 증가시키고, 더 많은 공간을 경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공간조성 정책이 요구되고, 일부 지점에 편중되어 있는 행태를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계천이 시민들의 단순한 휴식공간으로서 이용되는 기

능 이외에, 친수공간, 문화공간, 역사체험의 장 등 청계천 복원의도에 맞게 다양한 콘텐츠의 확보가 요청된다. 또한 도보관광 지이자 선적인 여가공간이라는 특성을 적극 활용하여 다양한 해설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청계천의 다층적 이용방안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IV. 결론

본 연구는 청계천을 대상으로 도심 내 선형 여가공간의 보행자 이동특성을 파악하고, 구체적인 행태를 밝히고자 진행되었다. 이 때 선형의 여가공간은 여타의 점적, 면적 여가공간과 차별적 특성을 가지므로, 보행자들의 동적이고 연속적인 행태분석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으며, 행태추적 방법 중 직접관찰법을 이용하였다. 기록은 도면표시와 일반적인 기술방법을 병행하여 진행하였으며, 109부의 유효표본이 분석에 활용되었다.

주요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청계천 보행자들의 이동거리 및 체류시간은 약 0.6km, 약 20분으로 선적인 여가공간인 것에 비하면 매우 짧게 이동하고, 짧게 머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적별 특성을 살펴보면 내국인의 경우 one way 형의 빈도가 더 높게 나타났고, 외국인의 경우 round 형의 빈도가 더 높았다. 동반 인원수별로는 인원이 많을수록 이동거리 및 체류시간이 짧아지고, 걷기 이외의 행위빈도 역시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체류 시 행위내용들을 살펴보면 동전 던지기, 안내문 읽기, 휴식 등의 소극적 행태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으며, 이러한 행위들은 대부분 청계천 제1코스 입구에 집중되어 있었다. 이들 행위가 일어나는 주요 지점의 특성을 분석해 보면 대부분이 랜드마크형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교량, 절점순으로 나타났다. 즉, 청계천 보행자들은 시각적으로 두드러진 랜드마크 인근에서 잠시 쉬며 소극적 행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물과 관련된 행위나 학습적 기능은 매우 적게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 결과들은 청계천의 기능이 일부 기능에, 일부 지점에 편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으며, 향후 다양한 기능을 도입하여 체류를 증가시키고, 밀도가 높은 지점의 이용을 다양한 지점으로 분산시키는 정책적 대안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관찰을 통해 본 주요 행위들은 기존 복원의도였던 친수공간, 문화·역사 체험의 장과는 다소 차이가 있어, 이에 대한 다양한 콘텐츠 등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직접관찰법을 이용하여 청계천 보행자들의 동적이고 연속적인 행태를 분석하고, 공간별 분절적 행태가 아닌 대상지내 보행자별 이동특성을 전체적으로 관찰하고 분석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또한 그 동안 미약했던 도심 내 선형 여가공간의 보행자 이동특성을 이해하고, 그 행태를 파악했다는 데에도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직접관찰법이라는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행위자 개개인의 동기 등 심리적 특성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 조사의 특성상 샘플사이즈 확보가 쉽지 않았다는 점, 연구 대상지에 5분 이내로 짧게 체류하거나 대상지를 이탈한 보행자들의 특성을 밝혀내지 못한 점, 국적별·동반자 인원별 통계적 차이분석 등을 진행하지 못한 점 등의 한계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행태추적 방법론을 도입하고, 이를 병행 적용하여 보행자들의 행태를 더 정확하게 분석하고 해석할 수 있길 고대한다.

References

- Baek, S.-H.(2006) A Study on the Cultural Behavior in Chunggyecheon Area. The Seoul Institute.
- 백선혜(2006) 청계천 지역의 시민문화행태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Chae, H., T.-H. Kim and Y.-R. Choi(2009) A study on the correlation of changing pedestrian network and building uses due to the restoration project of Cheonggyecheon, Seoul Studies 10(1): 169-182.
- 채훈, 김태호, 최유란(2009) 청계천복원사업에 따른 보행자네트워크의 변화와 건축물 용도의 변화관계 연구. 서울도시연구 10(1): 169-182.
- Cho, K.-J., Y.-K. Kim and Y.-H. Kim(2014) A study on travel motivation and satisfaction in city open space.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Landscape Architecture 42(1): 27-40.
- 조경진, 김용국, 김영현(2014) 도시 오픈스페이스 방문동기 및 만족도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42(1): 27-40.
- Cho, E.-Y. and D.-K. Kim(2012) Analysis of visitors' behavior by blogs. Journal of Design Forum 35: 77-86.
- 조은이, 김도경(2012) 블로그를 이용한 삼청동길 방문자 행태분석. 한국디자인포럼 35: 77-86.
- Choi, W. and K. Kim(2013). Uses and functions of squares in a downtown based on the concept of behavior setting. Urban Design 14(1): 109-120.
- 최우석, 김기호(2013) 행태의 장 개념을 통해 본 도심 내 광장의 이용 및 기능에 대한 연구. 한국도시설계학회지 14(1): 109-120.
- Fennell, D. A.(1996) A tourist space-time budget in the Shetland Islands. Annals of Tourism Research 23(4): 811-829.
- Hwang, J.-Y.(2008) A Study on The Behavioral Characteristics of Visitor to Chenggyecheon in Seoul. A Master's Thesis, University of Seoul.
- 황지영(2008) 서울시 청계천 이용자 행태 분석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Hwang, J.-H. and K.-H. Ahn(2012) Effects of commercial in pedestrian behaviors -A case study of Myung-dong commercial district in Seoul. Journal of Urban Design Institute of Korea 13(1): 19-31.
- 황지현, 안건혁(2012) 복합상업시설이 상업지역 보행자 행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도시설계학회지 13(1):19-31.
- Jang, Y.-W.(2013) An exploratory study on walking tourism revitalization plans in Seoul city. Journal of Tourism Service Research 12(1): 65-80.
- 장용운(2013) 서울시 도보관광 활성화 방안에 관한 탐색적 연구. 관광서비스연구 12(1): 65-80.
- Jung, C., R.-S. Jung and H. Lee(2011) Forecasting demand and estimating the economic impact of walk tourists: Focused on Jeju Olle. Journal of Tourism Sciences 35(8): 389-408.
- 정철, 정란수, 이훈(2011) 도보관광 수요와 파급효과 분석: 제주올레를 중심으로. 관광학연구 35(8): 389-408.
- Kang, M.-H. and H. Jung(2011) Identification of trekkers' characteristics: Focusing on Jirisan-round trail user. Journal of Korean Forest Society 100(3): 382-391.

- 강미희, 정휘(2011) 도보여행자의 특성 규명: 지리산둘레길 이용자를 중심으로. 한국임학회지 100(3): 382-391.
12. Kang, S.-I. and K.-H. Lee(2011) Jeju Olle tourists' travel motivation, environmental attitude and sense of wellbeing. Korean Journal of Tourism Research 25(6): 23-40.
- 강성일, 이계희(2011) 제주올레관광자와 대중관광객의 특성 비교: 방문 동기, 환경친화적 여행태도, 웰빙인식을 중심으로. 관광연구 25(6): 23-40.
13. Kim, S.-E. and Y.-S. Sim(2011) Activation of Seoul walking tourism. Journal of Tourism and Leisure Research 23(7): 43-60.
- 김소은, 심연숙(2011) 서울시 도보관광 활성화에 관한 연구. 관광레저연구 23(7): 43-60.
14. Kim, S.-H.(2007) A Study on Revitalization Plan of Cultural Park through the Participant Observation: Focused on the Case of Marronnier Park. A Master's Thesis, University of Seoul.
- 김성호(2007) 참여관찰에 의한 문화공원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5. IM, S.-B.(2008) Environmental Psychology and Human Behavior. Seoul: Bomun.
- 임승빈(2008) 환경심리와 인간행태. 서울: 보문사.
16.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2010) The Effect on Waling-Tour Revitalization.
- 문화체육관광부(2010) 도보여행 활성화에 따른 파급효과.
17. Park, H.-S.(2013) The Effects of Pedestrian Environmental Design on Pedestrian Behavior in the Context of Urban Spatial Structure: Case Study on the Intermediate Space Around the Mixed-Use High-Rise Residential Buildings in Seoul. A Doctorate Thesis, Hongik University.
- 박현신(2013) 도시공간구조적 관점에서 보행환경디자인이 보행자행태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8. Park, M.-H. and H.-J. Yun(2014) Analyzing behavior tracking and movement patterns of walking tourists in urban village streets using smart phone application. Journal of Tourism Sciences 38(5): 37-58.
- 박미현, 윤희정(2014)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골목길 도보관광자 행태추적 및 공간이동 패턴. 관광학연구 38(5): 37-58.
19. Park, Y.-A. and Y.-H. Hyun(2009) An exploratory of walking-tour motivation: The case of Je-Ju Island 'Ol-Le gil'. Journal of Tourism Sciences 33(7): 75-93.
- 박영하, 현용호(2009) 도보여행 동기에 관한 탐색적 연구: 제주도 '올레길'을 중심으로. 관광학연구 33(7): 75-93.
20. Seo, H.-L.(2013) Walking Path Distributions and Characteristics of Optional Pedestrian Activities in Neighborhood Street Environment. A Doctorate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 서한림(2013) 주거지 가로환경에서의 보행경로 분포와 선택적 보행행태 특성: 서울, 북촌, 성산, 행당의 사례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1. Sohn, S.-J.(2008) A study on the revitalization of culture-tourist place through the actual condition and the using of Cheonggyecheon urban-waterfront. Journal of Culture and Tourism Research 10(1): 59-70.
- 손수진(2008) 청계천 도시수변공간의 이용실태분석을 통한 문화관광지 활성화 방안. 문화관광연구 10(1): 59-70.
22. Pettersson, R. and M. Zillinger(2011). Time and space in event behaviour: Tracking visitors by GPS. Tourism Geographies 13(1): 1-20.
23. Zeisel, H.(1981) Race bias in the administration of the death penalty: The Florida experience. Harvard Law Review 95(2): 456-468.
24. www.cheonggyecheon.or.kr

원 고 접 수 일: 2014년 8월 22일
 심 사 일: 2014년 9월 29일(1차)
 2014년 10월 29일(2차)
 계 재 확 정 일: 2014년 10월 29일
 3 인 의 명 심 사 필